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니다. 농사는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땅을 돌보고 계절을 견뎌내야 하는 인내의 노동이기에,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보다 절실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진행되는 '농지 실태 전수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차원을 넘어, 농지가 본래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농업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농민들이 일정 기간 이상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제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계약 연장을 걱정하는 구조에서는 농촌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두 계약이나 불투명한 관행에서 벗어나 계약 기간, 임대료, 해지 사유 등을 명확히 하는 '표준 임대차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농지 실태 전수조사와 임차농

다시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농민이 자기 땅 없이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짧은 계약 기간과 미흡한 권리 보호로 인해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수년간 정성을 들여 흙을 살려놓아도 계약이 끝나면 떠나야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장기적인 농업 계획이나 친환경 농업 같은 지속 가능한 노력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제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농지를 확보해 청년 농민이나 귀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수급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계층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식량 안보와 농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땅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흙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 말하며, 땅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약한 이웃과 땅 흘러

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가르침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이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을 일구는 농민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그 땅이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농지의 존재 목적은 투기가 아니라 농사이며, 땅은 공동체를 먹고 살리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학·사회윤리 전공  
· 회신학회 연구위원  
· 주저권기독교연대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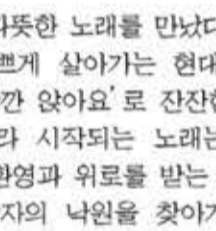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줄 때의 자세를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꾸어주라, "넉넉히" 꾸어주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꾸어주라. 곧 빈민 대부의 자세는 '반드시' (신 15:8, 10), '넉넉히' (신 15:8),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 (신 15:10)이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술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가난한 사람의 절박한 사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문제를 내세워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성경도 빚을 꾸고 나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인데도 안식년이 올 때까지 갚지 않고 버티면서 떼어먹는 자는 악인이라고 분명히 비판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배풀고 주는도다." (시 37:21). 이처럼 성경도 악인들이 안식년 빚 탕감 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같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간파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이 그 문제를 다 훨씬 더 중시하는 것은 바로 빚을 꾸지 않고는 건지기 힘든 가난한 사람의 절박한 사정이며, 또 꾸어 간 빚을 갚으려고 해도

곤란에 처한 가난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후에도 꾸어진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경우에는 탕감을 해야 한다고 각오하고, 자기 재정 지출의 한계 안에서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은 소액을 꾸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타인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기가 사는 집을 담보 잡거나 해서 거액을 꾸어주는 것은 결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의 긴급한 생계 자금을 위해 돌려받지 않고 탕감해 주어도 괜찮은 소액을 꾸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증을 서는 것은 성경이 금하므로, 보증은 절대 서지 말아야 한다. 신 15: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라." 여기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라는 말씀은 얼핏

### 부채 탕감의 자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궁핍한 형편 가운데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하는 가난한 사람의 괴로운 마음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 빚 탕감 제도를 악인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라고 하면서 악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의인은 은혜를 배풀고 주는도다"라고 노래한 후에, 다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배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시 37:26)라고 노래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배풀고 꾸어주는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시인처럼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래서 빚을 꾸지 않고는 건지기 힘든 가난한 사람의 절박한 사정을 주목하여 빚을 꾸어주고, 또 꾸어 간 빚을 갚으려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궁핍한 형편 가운데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하는 가난한 사람의 괴로운 마음을 헤아려 꾸어준 빚을 탕감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가족의 수술비나 대학 등록금이나 생계비 등이 급히 필요하지만 그 돈을 빌릴 수 없어서

보면 그 앞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 15:4)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라는 말씀은 인간 세상의 불완전성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곧 사람의 장애나 질병이나 부상이나 내태나 전쟁이나 권력자들의 불의한 수탈이나 가뭄이나 홍수처럼 인간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에 비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은, 그와 같은 인간 세상의 불완전성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았지만, 안식년 빚 탕감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니, 안식년 빚 탕감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희년 세상을 만들라는 뜻이다. 그래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라는 말씀을 "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테니,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가난은 해결할 수 없어."라고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반대로 가난이 발생하는 현실과 그 원인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안식년 빚 탕감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용남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대표

'소문의 낙원'은 2026년 4월 7일 악동뮤지션의 이찬혁과 이수현남매가 함께 불렀으며 '개화'라는 앨범에 수록된 노래이다.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조회 수가 1,300만 회가 넘었다. 재미있고 쉬운 동작이어서 그런지 수많은 사람들이 썰렁거리며 따라하며 너털웃음에 울리고 있는데 각각의 영상들이 특이하고 재미있다. 노래를 들을수록 힐링이 되는 기분이다. 가사는 이렇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

사실도 앞으려면 한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다. 큰 성취를 이뤄 출세했다는 말이다. 개천에서 용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이 되지 않고 개천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이다. 모두가 용이 되는 세상은 없기 때문이다. 용이 안되어도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은 정치인이나 돈이 만들어 주지 않는다. '소문의 낙원'은 내 마음이 만든다. 나의 작은 관심과 친절로 만들 수가 있다. 모두가 함께 걸고 있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나그네임을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

### "소문의 낙원을 아시나요?"

어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들집을 터뜨리고 봉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 외롭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느리게 오래 걸어요, 우~ 소문의 낙원으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 참 서정적인 가사다. 뮤직비디오 영상에는 참 많은 출연자가 등장한다. 사자도 나오고 카우보이와 천사,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표현한 듯



최용남  
·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대표  
· 예정통합 전담교회 전도목사  
· 행복한 세상 신명찬 미래, 2 저자

**당신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서전 · 회고록 · 설교집, 교회사, 요람, 시보, 교회소식지, 동호회집지 등 모든 출판물

**도서출판 미션리**

한 평생 앞만보고 달려왔습니까? 이제 잠시 멈춰 서서 달려온 인생길을 되돌아 볼 때입니다. 틈틈이 기록해 온 글들, 오래된 책상에서 푹 튀어나온 빛바랜 사진들을 보며 지난 시절을 떠올려봅니다. 자서전, 회고록 등으로 지난 삶의 궤적을 남겨 보십시오. 도서출판 미션리 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설교집 · 교회사 · 시보 · 교회소식지 등 어떤 형태의 인쇄물도 언뜻 경력 30년이 넘는 전문 편집인이 도와드립니다. 원고정리에서 교정, 편집 · 디자인 · 출판까지 맡겨주세요.

**출판상담** 정선화 편집장 겸 총괄이사 010-4602-7825

도서출판 미션리 TEL 062-367-9109, FAX 062-367-910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69 (3층) / E-mail : phj2930@nate.com